

企業觀의 積極化

朱 利 雲*

1. 序 論

80年代 福祉社會建設을 向해서 前進하는 國家와 國民이 안고 있는 많은 課題中에서도 企業이 擔當하고 있는 部門은 名實共의 크고도 무겁다. 그것은 우리국민전체가 協力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努力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根源이 資本主義 經濟制度에서의 歷史的 推積의 測面에서부터 整理가 이루어져야 할 理念의 새 定立問題이고 精神의 革新에 呼訴되어지는 問題이기도 하다. 우리 주변에서 高潮되는 企業人에 對한 批判, 商道義確立, 技術者의 倫理, 消費의 不健全 등등이 正常化되기 위해서는 企業人, 政策當局者는勿論이고 일반국민까지도 企業에 對한 새로운 또는 發展하는 資本主義產業社會에서 生態的 变천이 要請하고 있는 적절한 생각이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企業經營者들은 새로운 企業의 價值觀에 對한 當爲性을 認識하고 積極化함으로써 보다 健全한 企業風土造成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2. 社會的責任의 經營理念化

現代企業이 어떤 指導原理에 의해서 行動하고 있으며, 어떤 行動을 할 것인가에 대한 經營者行動에 必要한 指導原理에 對한 研究는 經營學의 發達과 더불어 오래고도 새로운 課題다.

企業의 經營者가 어떠한 經營理念에 의해서 行動하는가는 다만 經營者自身에 局限된 問題가 아니라 이것은 企業의 存續에 關한 問題요 나아가서는 經濟全體에 대한 問題이다.

이 問題를 企業의 社會的責任이라는 課題下에서 생각한다. 企業의 社會的責任이라고 할 때는 結局 企業의 經營者의 社會的責任으로 돌아가는 데 經營者의 社會的責任이라고 하는 것은 經營者가 環境主體의 主體性을 尊重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定하는 것과 해야 할 것을 해야하는 것 즉義務(Obligation)를 實行에 옮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환경주체의 주체성을 尊重하는 “經營目標의 形成→經營組織形成→經營經濟過程形成”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經營者가 社會的責任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의 Obligation을 實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經營者의 職務는 上記한 바의 社會的責任을 經營理念化하여 그 責任을 다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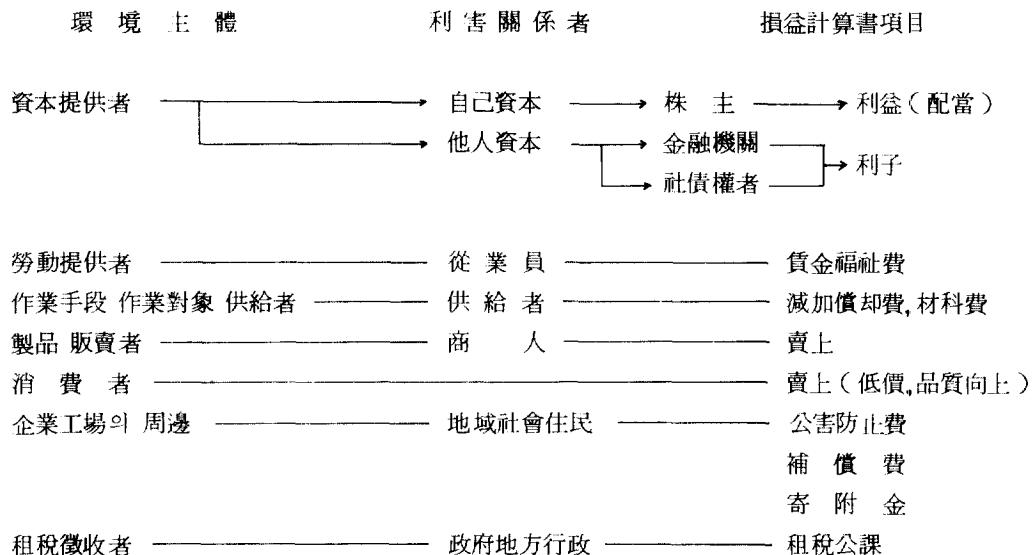
그러면 經營者의 環境主體에 대하여서도 歷史的으로 變한다. 1世紀前에는 Investor Customers Employees Government 이었는데 現在는 企業은 Government Investors Business Association Vendor Labor Community Public and other Scientists and professionals management 와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 韓國工業標準協會 教育3課長

이것을 management 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環境主體를 일반으로 利害關係者 集團(Interest group)을

을包含하는데 利害를 去來關係面 으로 損益計算書面으로 表示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以上은 企業의 主要한 環境主體인데 그러나 같은 企業에서도 經營者가 認定하는 環境主體는 歷史的으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漸次 主觀的 環境主體가 增加했다고 할 것이다.

經營者の 社會的責任의 意味는 上述한 바와같이 經營者가 그 環境主體의 主體性을 尊重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決定하는 것과 그 결정한 바를 實行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經營者の 經營理念인 것이다.

그리고 경영자는 이 經營理念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3. 社會的責任의 實行

社會的責任의 實行은 環境主體의 主體性을 尊重하기 위해서

① 計劃(해야할 것을 결정)

② 執行과 統制(해야 할 것을 실행)

이와같이 計劃, 執行, 統制는 또한 經營目標, 經營組織, 經營經濟過程으로 關聯지을 수 있다.

그런데 經營의 基本問題는 經營目的(經營理念과 經營目標)과 經營組織과 經營經濟過程이

다. 그리고 실행에 앞서 경영목표가 구체화되고 또 경영조직과 경영경제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① 計劃에 대해서는 社會的責任理念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다.

② 經營目標를 設定(目標計劃)

④ 經營組織을 形成(經營組織計劃)

⑤ 經營經濟過程을 樹立(財務計劃)

②의 執行과 統制에 關해서는 上記 ①에서 計劃된 것을 實施하고 統制하는 것, 計劃과 執行 統制를 一括해서 management process (經營過程)라고 하면 社會的責任을 다하는 것, 社會的責任의 實行은 經營者가 그 環境主體의 主體性을 尊重하기 위해서 經營目標, 經營組織, 經營經濟過程을 關聯시켜서 經營過程을 實現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經營過程은 또한 上記의 ② 社會的責任의 실행으로서의 경영과정이 있기전에 그前提로서의 經營活動으로서 ④ 社會的責任을 「經營理念化」하는 活動이 있어야 한다. 즉 理念과 實行이 合해서 비로서 經營活動의 전체가 이루

어지는 것이다.

4. 企業의 自發性

Eells 와 Walton 에 의하면 “ 사람들의 注目을 끌고 있는 企業의 社會的責任에 있어서의 本質的要素(the essential element) 는 企業에 賦課된 任務(Obligation imposed) 를 다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責任(Responsibility assumed) 의 단계로 옮아가는 것이다 ” 라고 하였다.

또 Davis 도 「 社會的責任의 概念은 社會的責任은 法律이 끝나는데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만일 회사가 다만 「 法律上의 최소한의 要求만 充足시키는 것으로 끝난다면 」 그것은 社會的責任感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社會的責任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회사가 法律要求를 넘어서 社會的義務를 擔當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주장들은 自發性은 社會的責任의 本質的要素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자발성이 없는 社會的責任은 이미 참된 社會的責任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理解는 經營者的立場에서의 見解이다. 왜냐하면 客觀的一般的으로는 社會的責任은 他律에 의해서(立法行政 및 司法) 經營者로 하여금 經營理念化시키고 또 실행시켰을 경우에도 經營者の環境主體에 對한 主體性이 尊重된 것이라 하겠지만 이것은 經營者の 입장에서 볼 때에 問題가 되는 것은 經營者가 자발적으로 社會的責任을 理念化하여 實行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바로 그 點이다.

社會的責任의 理念화와 實行에 대해서 자발적인 것과 他律的인 것으로 區別을 할 때는 前者뿐만 아니라 社會的責任의 內容에 該當하고, 後者は 該當치 않는 것이다. 「 여기서 經營者的立場에서 본다 」는 말은 經營問題로서 본다는 뜻으로 經營學이 취급하는 문제로서 본다는 의미이다.

經營學이 取扱하는 社會的責任은 經營問題로서의 社會的責任이고, 이것은 經營者的自發性=自律性에 對한 社會的責任의 經營理念화와 實行을 의미하는 것이다.

經營者的 他律的인 社會的責任은 經營者에 對해서 社會的責任을 附加시키는 權力を 갖춘 經

營者이외의 主體 즉 政府등의 社會的責任으로서 經營學 이외에서의 問題로서 取扱될 性格인 것이다.

5. 經營學의 社會的責任의 背境

그러면 왜 經營學의 問題로서 社會的責任이 強調되고 있는가 하는 歷史的事實이다. 왜 經營者가 責任을 負擔해야 되게 되었는가의 問題이다. 여기에 對해서도 많은 주장이 있다.

Davis 의 社會的責任과 問題化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整理해 볼 수 있다.

(a) 多元主義(Pluralism)

多元主義는 現代產業文化의 基本的事實이다. 다원 사회에서는 多數의 權力센터가 存在하며 각각 責任 있는 交渉과 妥協에 의해서 진행된다.

企業도 責任 있는 市民集團(投資家, 經營者, 勞動者, 地域社會住民, 科學者等) 인 共同體와 企業은 多種多樣의 組織體의 諸要求를 調整하는 人間勞力의 表現이다.

즉 企業은 多種多樣의 諸要素 group에 대해서 多종다양한 方法으로 責任을 갖는 것이고 또 諸要求者도 企業에 責任을 갖는 것이다.

多元主義는 社會的 權力센터를 增加시키고 이것들을 社會시스템(system) 안에서 相互關係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社會的責任의 모순을 解決할 때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이다.

(b) 相互依存의 增大와 複雜化

오늘의 세계는 技術, 意思疎通(Communication), 政策 등에서 굳게 연결되어 있고 各國間의 相互依存關係는 날로 增大되고 複雜化되고 있다.

(c) 富와 文化的向上과 保存의 必要

현대사회에서는 保存해야 할 富와 文化가 增大되었는데 이것들이 無責任한 行動(가령 危險한 藥品販賣, 大規模 Strike , 하천대기汚染등)에 의해서 파괴되어서는 안된다.

世論은 모든 組織體나 모든 人間이 責任 있는 行動을 취해야 한다는 要求가 높아가고 있다.

企業도例外는 아니다.

(d) 企業과 社會와의 關係에 대한 知識의 向上

이미 세계는 Adam Smith 時代 純粹競爭의 時代는 아니다.

이제는 社會 諸科學의 發展으로 因해서 企業이 社會 system 에 대해서 어떠한 影響을 주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e) 政府 介入關係

企業이 責任 있는 行動을 하지 못하면 政府가 介入하게 되고 政府 介入의 權限이 커지면 커질 수록 企業의 自律性과 權限은 縮小된다.

(f) 倫理的 要求

현대의 倫理概念은 責任 있는 行動에 대해서 同情, 同調하도록 人間을 教育하고 있다.

經營者도 현대 사회의 態度와 價值觀을 받아들여서 責任 있는 行動을 취해야 한다.

(g) 所有와 經營의 分離와 專門經營者

현대 企業에서는 所有와 經營이 점점 더 擴大 分離되어지는 傾向이다. 專門經營者는 보다 長期的 業界에서 또는 보다 광범위한 要求者的 배려를 하게 된다.

대체로 以上이 Davis 가 指摘한 요점이다. 이 내용을 좀 더 음미해보면 우선 私企業이 自律性을 갖는 것은 私益追求가 公益을 가져올 수 있는 학계에서 許容된다.

公私益一致의 要求를 만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私企業의 자유가 認定되고 따라서 사기업의 自由性, 自律性의 要求가 充足되는 것이다.

그런데 公私益一致의 要求는 基本的으로 2 가지 方式이 있는데 어느 한 方式에 의해서 滿足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自然的一致이고 또 다른 하나는 人爲的一致이다.

Adam Smith 의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에 의한 自然法의 조화는 이 公私益의 自然的一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근거는 完全競爭에 둔다.

歷史의으로 우선 이 自然的一致의 단계가 있다. 英國에서 確立된 公私益의 自然的一致의 原理는 美國에 移植되어서 開化되고 결실되었다.

그러나 그 過程에서 公私益의 自然의 일치는 破壞된다.

自然的一致의 過程은 자연도태의 과정이다.

즉 弱肉強食의 과정이다. 결과로서 巨大한 企業 (Big Business) 이 出現되어 完全競爭 구가 무너지고 公私益의 自然的一致가 깨졌다 고 볼 수 있다.

巨大企業化 企業 (Power) 이 增大가 되고 그 經濟的 權力은 政治的 權力, 社會的 權力이 되고 나아가서 人間生活의 全領域에 걸쳐서 影響力を 갖게 되어 權力남용이 되게 되는고로 社會的 責任論에서는 巨大한 企業의 權力이 특히 注目을 받게 된다.

거대기업의 권력증대, 권력남용은 必然的으로 世論의 批判을 받게 되고 法的規制를 받게 된다. 이러한 사태에서는 公私益一致의 方式으로는 達成 안되기 때문에 人爲的一致 方式을 擇하게 된다.

公私益의 人爲的一致에 의할 때도 2 가지 方式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私企業의 努力이며, 또 다른 하나는 廣意의 政府活動 (立法, 行政, 司法)이다.

그런데 私企業은 私企業의 自由性, 自律性의 要求를 갖고 있다.

이 要求를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公私益一致의 要求를 滿足시키지 않으면 안되고 그렇다고 自然的一致 方式은 이미 없으니까 오로지 人爲的一致 方式 밖에는 없는데 政府의 介入을 預期하는다면 다만 스스로 努力할 수 밖에 없다.

이 努力이 바로 自發的으로 社會的 責任을 企業이 經營理念化하여서 實行할 수 밖에 없다는 結論이 나오게 된다.

6. 結論

이상에서 現代企業의 指導原理로서 社會的 責任의 經營理念化 그것의 實行 自發性과 背景을 記述하였다.

資本主義 經濟社會의 自發性을 保守하기 위해서는 必然的으로 企業化 또는 經營의 社會的 責任을 經營理念化하여 實行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企業經營者에게 負荷된 社會的 課業, 社會的 責任, 社會的 業績이 무엇이며, 어

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测定하기 위해서 價値基準에 對한 共通單位로서의 새
로운 企業觀의 積極化가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参 考 文 献

- 1) 朴運成; 新經營 政策, 日新社, 1976
- 2) Davis, K.: The case for and against Business Assumption of social Responsibilities, Academy of managerial Journal, June, 1973.
- 3) Eells. R. and Walton C. C: Conceptual Foundation of Business 1961, revised edition, 1969.